

20대의 정치의식 특성과 정치성향의 형성경로

이영민

이 논문의 목표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변화한 20대의 정치적 위상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산물로 규정하고, 20대 정치의식에 대한 체계적 경험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의 변동과 전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 20대의 정치의식 특성을 살펴보고, 정치이념의 형성경로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단계에서 설정한 경로모델의 변인들이 정치성향 형성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의 구체적 경로에서 세대 별 차이가 있음이 실증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회인식과 달리, 20대 정치의식 변화의 추세적 특성은 보수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무당파의 증가에 있다. 둘째, 20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전형적 반응유형은 정치적 무관심이다. 20대의 정치관심도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으며, 1996년 이후로 10년간 꾸준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물질주의적 삶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기존 정치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소외적이고 종속적인 정치태도를 보이는 20대의 세대적 특성으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전체 공동체의 역량에 대한 불신과 냉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정치성향의 형성경로를 분석한 결과, 20대 모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음 두 가지 경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1) 낮은 정치효능감은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진다. 2) 공동체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나타내는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가 정치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주제어: 정치무관심, 탈정치화, 세대사회학, 20대, 청년세대, 정치성향, 정치사회화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9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20대 젊은 층의 정치의식의 특성은 ‘탈정치화’와 ‘정치적 보수화’로 간주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20대 젊은 층이 진보와 저항의 상징으로서 정치변혁과정의 핵심 주체로 평가받았던 과거와는 극명하게 대립된다. 20대 젊은 층의 정치의식의 변화는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학생운동의 소멸과 비운동권 총학생회의 등장, 한국 제도 정치 내에서 ‘보수’를 자임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2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와 진보정당의 고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20대의 탈정치화와 보수화가 적어도 현실정치의 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한 20대의 정치적 위상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87년 민주화 이후로 급속한 변혁의 20년 시기를 보냈다. 앞선 10년의 정치적 변혁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달성과정이고, 최근 10년은 1997년 IMF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화와 그 산물인 양극화의 심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변혁의 과정이었다.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혁은 사회제도와 같은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그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일상 문화의 변화를 추동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의 시기에는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변동과 그 체제의 문화적 변동의 격차가 매우 심화되어 정치문화의 균열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김영경, 1997: 3)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논의는 이와 같은 정치문화의 균열구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 한 사회의 정치문화의 변동은 “기성세대의 퇴장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세대의 등장, 즉 세대교체(generational replacement)를 통해 이루어지기”(김욱·이이범, 2006: 93)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혁 과정에서 성장한 20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의 균열구조를 살펴보고, 향후 정치적 변동을 예측하는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대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정치권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를 사회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적 시각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 시기의 20대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기존의 저널리즘적인 관심을 뛰어넘는 사회학적 논의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첫째, 이들은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포스트-97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형성된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는 한국사회의 포스트-97체제 이후 사회변동의 정치 문화적 차원을 규명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반대중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평가받는 20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논의는 한국사회의 현실정치와 미래의 정치문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2. 연구 질문 및 방법

이 연구의 목표는 20대의 정치성향의 형성경로가 다른 세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오늘날 한국의 20대의 정치성향(political preference)과 정치에 관련된 태도를 나타내는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 등 정치의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현 시기의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인식은 탈정치화와 보수화로 대표된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서는 사회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20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먼저 20

대의 정치성향과 정치관련 태도인 정치정향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세대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2) 20대의 정치성향은 교육수준, 가계소득,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 정치신뢰도, 타인에 대한 신뢰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및 정치정향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이는 비20대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 질문에서는 정치성향을 형성하는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관련 태도 요인들 간의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그를 검증하고자 한다. 세대별 비교를 통해 먼저, 20대가 정치성향의 형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20대의 형성경로 상의 특성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세대적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20대의 타 세대와 구분되는 정치의식의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은 STATA10.0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드러난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치성향 형성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행하여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은 변수 간에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설정된 인과적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특정화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써,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에 혹은 내생변수 간의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측정하여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윤인진, 2001). 계수추정을 위해서는 ML법(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카이제곱과 AGFI(조정적합지수), RMSEA(근사오차자승평균이중근) 등의 적합도 평가 지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사용한 자료

는 2006년에 실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 2006)이며, 모집단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이고 유효 응답자는 총 1,605명이다.

3.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검토

1) 정치의식의 형성과정과 세대의 사회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의 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정치의식, 즉 한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는 그가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계층, 세대,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정치의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관심인 ‘세대’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상이한 역사적 시점과 단계를 경험한 다른 연령집단으로의 인구학적 교체를 통해 발생”(Inglehart, 1990: 20)한다는 점에서 그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인 범주집단(categorical group)이다.

세대의 정치의식을 연구하는 데에는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세대 개념을 처음으로 창안한 만하임(Mannheim, 1952)에 따르면 “정치세대란 성년초기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고 그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뚜렷이 구별될 수 있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연령집단(cohort)”으로 이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형성기(formation period)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해석하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많은 서구 정치학자들은 각 국가의 정치지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정치세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왔다(Billingsley and Tucker, 1987). 특히 앞선 정치세대 연구들¹⁾은 정치성향의 형성과정에서의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와 연령효과(aging

effect) 그리고 기간효과(period effect)에 관심을 가져왔다. 각 정치세대가 겪은 독특한 사회·문화·정치적 경험의 결과 생성된 그 세대의 특유한 성향을 세대 효과라고 한다. 세대 효과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치적 성향이 변화하는 연령효과와는 구별되는 개념(강원택, 1998: 263)으로써, 동일한 사회경제구조 하에서 삶을 영위해오는 특정 연령집단이 공유하는 정치적 경험과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사회화는 정치성향과 행동의 양식을 발전키는 과정으로 집단의 가치, 태도, 행동의 학습을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Kourvetaris, 1997: 256)이며,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 성장한 각 세대들은 어린 시절의 사회·정치·역사적 경험들의 결과로 구별되는 정치행동(political behavior)을 보인다.

세대의 정치의식과 정치행동은 정치에 대한 세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태도의 집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정치학에서는 정치정향(political orientation)이라는 말로 개념화한다. 아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72)는 정치정향을 “정치체제 자체와 그 체제 속의 여러 대상, 그리고 정치체제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태도란 “특정대상, 행위,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려는 성향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어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선택적 반응을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정희옥, 2003: 16)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정향은 한 개인이 생애 전체에 걸쳐 경험해 온 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둘러싼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1) 빌링스키와 터커(Billingsley and Tucker, 1987)의 정리에 따르면, 클리튼텐(1962)을 비롯한 많은 정치학자들은 개인이 나이가 먹을수록 보수적으로 변화한다는 연령효과에 주목했으나, 켈터(1969; 1970)와 글렌과 해프너(1972)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기, 특정 국면에 나타나는 기간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클라켓(1981)은 세대효과가 정치성향의 습득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illingsley and Tucker, 1987에서 재인용).

개인의 경험의 축적에 의한 반응인 정치정향은 정치문화를 학습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행동과 반응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정치문화를 학습하고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은 동일 세대들의 정치정향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세대동질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효능감이나 정치신뢰와 같은 정치태도는 개인의 정치사회화 과정과 관련이 깊다. 정치사회화는 개인이 어떻게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획득하고 형성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한 “개인이 정치적 가치나 태도를 획득해나가는 과정”(Dawson et al., 1977: 33)이다. 따라서 정치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치태도의 전개와 정치체제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Marsh, 1971).

특히, 근대화 이후 급속한 사회·정치·경제적 변동을 경험한 한국사회는 정치세대의 세대 간 차이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차별적 노출에 따른 사회화 과정과 그 내용의 변화에 따른 산물”(Klecka, 1971:358)이라는 점에서 정치 세대론적 접근법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여 각기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연령집단이 사회의 주요 행위자로 존재할 때에, 세대요인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진민, 2002: 104).

정치사회화와 관련된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탐색적 단계에서 지금의 20대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경험을 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시기에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해체를 겪었다는 점, 둘째, 사회진입 단계에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셋째, 386세대나 유신세대와는 달리, 민주화와 IMF 금융위기 이후로 급속하게 진행된 공동체 붕괴와 연대성의 상실로 인해, 연대를 통해 체제와 주류에 저항하는 집단적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2) 20대를 둘러싼 세대담론과 그 쟁점들

최근 한국사회에서 20대라는 특정 세대는 가장 주목받는 사회적 범주집단²⁾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실 ‘세대’가 생애주기와 구별되는 의미를 갖는 사회학적 개념인가에 대한 논쟁은 학계에서도 계속 제기되어왔다. 먼저, 세대의 다차원성과 이질성의 문제이다. 세대라는 특정 연령층은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나 젠더 뿐 아니라 태도나 가치의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지닌 이질적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코호트와의 ‘큰 차이’와 견주어볼 때 동일 코호트가 보여주는 의식과 행위양식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일 가능성이 높으며, 세대 내의 다차원성과 이질성 개념과 ‘단일한 세대의 가정’은 분리해 보아야 한다(박재홍, 2001; 2009).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20대 개개인의 정치의식과 관련된 “의견의 세부적 편차가 아니라 공유하고 있는 근본, 다양성의 저변의 깔린 전형성, 차이의 저변에 깔린 공통점을”(박재홍, 2003: 18)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20대의 “정치이념 성향은 각기 다르더라도 이념을 설정하는 좌표는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윤상철, 2009: 65)이며, 그 좌표를 찾는 것이 이 연구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20대의 정치의식의 세대적 특성은 세대적 동질성이 아니라 20대의 정치현실에 대한 전형적 반응유형(typical response)이다.

세대론을 둘러싼 다음 논쟁은 ‘세대효과’를 어떻게 구분³⁾할 수 있

-
- 2) 기존의 20대 세대 담론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조하는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로 대표된다. 이 밖에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상대적인 보수화를 강조하는, ‘탈정치화 세대’론, 20대의 소비 지향적 특성과 소비자로서의 의식을 강조한 ‘C세대’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조한 ‘Me세대’, 20대의 적극적인 자기표현 방식을 강조하는 ‘광장세대’ 등의 여러 담론이 있다.
- 3) 세대 효과는 다음 세 가지의 이념형적 구분이 가능하다. ① “출생 이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화에 따른 경험차”(박재홍, 2001:55)로 인한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와 ② 특정 관찰시점에 기인한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른 기간효과 ③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나 연령에 기인하는”(박재홍, 2001:55) 연령효과 혹은 생애단계 효과(life-course effect)가 그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

는가 문제이다. 20대를 예로 들면, 현 시기의 20대는 1) 사회진출기 청년층이라는 생애단계(인간발달 과정에서의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에서 (연령효과 또는 생애단계 효과), 2) 청년실업과 경제 불황이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환경에 노출된 특정 기간에 살고 있는(기간효과: 경제 위기와 고용불안정성에 노출), 3) 청소년시기 IMF의 경험의 공유라는 역사적 체험에 의한 코호트적 특성(세대효과: 포스트 97체제에서 성장)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 시기의 20대라는 특정시기 특정 세대의 정치의식은 이 세 효과가 결합하거나 서로 동시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 따라서 20대 정치의식의 특성은 20대의 공통된 기층경험(primary stratum of experience)과 불확정적 생애단계의 특수성, 그리고 시대적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세대라는 범주집단에 주목하여 정치의식을 경험적으로 다룬 기존의 연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특정 세대의 정치성향에 관한 연구로 대학생과 같은 젊은 층에 관한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들이고(강철승, 1999; 이경희, 1992; 황명희, 1990; 전대원, 1999; 전용주·차재권·김은미, 2007; 전용주·김도경, 2008) 다른 하나는 정치이념의 균열, 혹은 선거에서의 '세대변수'가 가지는 설명력에 관한 연구들이다 (강원택, 1998; 2003; 김묘성 외 2003; 김재한, 1996; 박길성, 2002; 이내영, 2002; 정진민, 1994; 2002).

한국 사회의 이념적 경직성으로 인해 한국학계에서는 이념성향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념'이 중요한 사회적 균열의 축(한준·설동훈, 2006)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념성향에 대한 연구들(김재한, 1996; 강원택, 1998; 홍두승·박용치 외, 2002;

실상 경험적으로 이들 세 가지 효과를 구별해내는 것은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Glenn, 1977).

2003; 한준·설동훈, 2006)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사회 학계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2002년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지역주의 약화와 정치이념 분화로 인한 386등의 젊은 세대요인의 등장으로 분석(강원택, 2003; 정진민, 2002; 박길성, 2002)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정치이념과 세대변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선거나 정치이념의 균열에 대한 설명변수로만 쓰이던 '세대변수'를 직접적인 설명과 이해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 등 특정 세대에 대한 정치의식의 연구가 해당 세대에 대한 설문결과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대규모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의식의 특성과 그 형성경로를 다른 세대와 함께 비교한다.

4. 20대 정치의식의 특성

20대의 세대적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통해 20대의 정치성향, 즉 정치관련 태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과 그 형성배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1) 20대 정치성향의 변화 추세(1990-2006)

먼저 20대의 정치성향을 이전시기의 20대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의 추세와 변화상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기의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 두 개의 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과 <표 2>에서 나타난 20대의 정치이념 성향의 변화추세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20대 젊은

<표 1> 자기평가 정치이념 성향의 변화추세 1990-2006

단위 (%)	보수				중도				진보			
	1990	1996	2001	2006	1990	1996	2001	2006	1990	1996	2001	2006
20대	37.1	17.2	19.8	20.7	42.9	31.8	36.3	36.6	20.1	51.0	43.6	42.8
30대	47.7	28.2	23.4	26.4	37.2	37.7	39.3	36.3	15.2	34.2	37.3	37.3
40대	56.6	34.9	35.1	41.4	35.3	41.0	37.9	37.4	8.14	24.2	27.0	21.3
50대	72.1	33.2	41.8	45.0	22.1	46.6	39.8	33.1	5.71	20.2	18.4	21.9
60대	69.3	41.0	52.1	66.5	28.4	42.3	29.6	18.6	2.27	16.7	18.3	15.0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Wave2(90), Wave3(96), Wave4(01), Wave5(06)

<표 2> 자기평가 정치이념 성향의 변화추세 2003-2007

단위 (%)	진보			중도			보수		
	2003	2005	2007	2003	2005	2007	2003	2005	2007
20대	41.03	35.91	32.62	25.52	34.98	39.72	33.45	29.10	27.66
30대	37.69	34.86	35.71	24.92	33.71	33.93	37.39	31.43	30.36
40대	29.17	32.86	31.66	27.78	27.76	31.95	43.06	39.38	36.39
50대	16.67	22.00	22.20	32.03	36.00	42.24	51.31	42.00	35.56

자료: KGSS 2003, 2005, 2007

층은 이전시기의 20대에 비하여 진보 층은 줄어들고 있지만 보수층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신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무당파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003년 이후의 최근 변화추세에 따르면 20대에서의 중도층 증가는 보수, 진보층의 동시 이탈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정치성향의 변화는 보수화가 아닌 중도화 내지는 무당파성 자체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20대에 관한 많은 연구들과 언론보도들이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으로 보수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 20대의 정치이념의 변화추세에서는 20대가 보수화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2007년 기준 20대에서 진보 성향의 비율은 30대 다음으로 높으며, 보수 성향의 비율은 놀랍게도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선거에의 보

수정당 지지나, 일반적으로 강한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운동권 총학생회에 대한 20대 대학생들 사이의 거부감 등, 현실정치에서 나타나는 20대의 정치적 보수성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에서 살펴볼 20대의 세대적 특성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 20대의 정치 세대적 특성: 물질주의 지향과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 3>은 20대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이 가장 높고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 연구가 문제제기 단계에서 상정한 20대의 정치 세대적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세대별 정치의식의 특성

세대	삶의 가치 (물질-탈 물질 1-3점)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 (긍정-부정 1-3점)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평균	표준편차	F값	
20대	1.56	.58	12.86 p<.001	1.13	.61	3.96 p<.01	323
30대	1.67	.49		1.05	.58		379
40대	1.77	.43		1.06	.56		412
50대 이상	1.73	.46		0.98	.57		417

자료: KGSS, 2006

20대는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은 물질주의 성향과 가장 낮은 탈 물질적 성향을 보인다. 이는 국내외 기존 연구들이 7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의 탈 물질주의적 가치정향의 강화를 전망한 것(Ingleheart, 1990; 정진민, 2002)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20대가 40-50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직간접적 경험해옴으로써,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물질적인 안정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20대의 물질주의적 경향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20대는 청소년 시기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모의 경제적 위기와 그로 인한 가족 위기를 직·간접적인 형태로 체험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청소년시기의 경제적 위기경험은 20대가 사회진출 시에 맞닥뜨리는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과 결합하여 물질적인 가치정향을 갖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탈 물질 가치는 실제 정치행동의 측면, 즉 정치과정에서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영향을 끼친다. 물질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생존과 안정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 탈 물질주의자들은 그러한 물질적 가치 외의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갖기 때문이다. 잉글하트(1990)는 이러한 관심 중 하나로 정치를 꼽는다(김육·이이범, 2006: 96). 이상의 논의는 물질주의를 지향하는 20대 특유의 가치정향은 다음에서 살펴볼 20대의 탈정치성 혹은 정치적 무관심을 강화시켰을 것이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3) 20대의 정치 관심도의 변화추세 (1996-2006)

20대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특성은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5는 20대의 탈정치화 경향이 주목받기 시작한 90년대 중 후반 이후, 20대의 정치관심도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정치관심도의 평균값은 10년간 꾸준히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모든 세대와 비교하여 가장 낮고 다른 세대와의 정치관심도의 격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또 표준편차의 값도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이 비교적 세대 동질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실제 선거에서도 낮은 투표율⁴⁾로 나타난다. 20대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8)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표 4> 세대별 정치관심도의 변화 1996-2006

세대	정치관심도 (낮다- 높다 1-4pt)								
	1996			2001			2006		
	평균	표준편차	F값	평균	표준편차	F값	평균	표준편차	F값
20대	2.63	.68	10.96 p<.001	2.32	.73	15.03 p<.001	2.14	.67	9.42 p<.001
30대	2.67	.72		2.43	.78		2.27	.73	
40대	2.74	.76		2.53	.76		2.34	.76	
50대	2.55	.82		2.65	.75		2.46	.85	
60대이상	2.33	.95		2.76	.87		2.25	.84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한국, Wave3-5

인식은 20대가 현재의 사회체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물질주의적 가치지향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정치적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살펴볼 20대의 정치태도는 이러한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4) 정치 무관심을 강화시키는 소외·중속적 정치태도

일반적으로 정치관심은 개인의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어왔다. 페이지(1971)는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정치정향으로 정치신뢰와 정치 효능감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여기서 정치효능감은 정부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는 이익집단과 개인의 투입(input)과정에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며, 정치신뢰는 정부와 그의 정책기구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들과 정책들을 가리키는 산출(output)과정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Paige, 1971: 810). 따라서 정치신뢰는 현재 정치체제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현재 정치체제와 사회를 변화 혹은 유지시키는 데에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결과, 전 세대에 걸쳐 20대의 투표율이 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대: 49.9% 40대: 66.3% 50대 이상:76.45%).

력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5>는 페이지의 분석틀⁵⁾을 원용하여 KGSS2006 자료에서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4가지 결합관계로 나누어 본 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본 것이다. 다른 세대와 20대의 차이를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표 5> 정치효능감-정치신뢰의 세대별 결합관계

결합관계 (비율 %)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소외 (낮은 효능 낮은 신뢰)	15.95	20.73	16.45	14.80	13.22
충성 (높은 효능 높은 신뢰)	36.70	32.01	33.93	37.47	41.58
이의 (높은 효능 낮은 신뢰)	23.43	12.80	18.77	27.21	31.34
종속 (낮은 효능 높은 신뢰)	23.93	34.45	30.85	20.53	13.86

자료: KGSS, 2006

우선 효능감은 높으나 현재 정치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정치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이의적인 태도가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난다. 이는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정치참여, 탈정치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대에서 정치효능감도 낮고 정치신뢰도 낮아 현실 정치에 대해 순응적이고 종속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20대가 단순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 및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고 스스로 정치에

5) 페이지는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4가지 결합 매트릭스를 만들어, 각각의 결합관계가 상응하는 태도들의 체계와 정치체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충성적인 경우는 정치효능감도 높고 정치신뢰도 높은 경우로, 이때 개인들은 현실의 정치체제를 신뢰하고 정치적으로도 능동적이므로 충성적인 특성을 가진다. 2) 이의적인 경우는 정치효능감은 높고 정치신뢰는 낮은 경우이며, 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활발하지만 정치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 이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3) 종속적인 경우는 정치효능감은 낮으나 정치신뢰가 높은 경우이며, 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낮고 정치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으므로 종속적이고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4) 소외적인 경우는 정치효능감도 낮고 정치신뢰도 낮은 경우이며, 개인들은 현실의 정치체제를 불신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효능감이 낮아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소외적인 특성을 가진다(Paige, 1971:810-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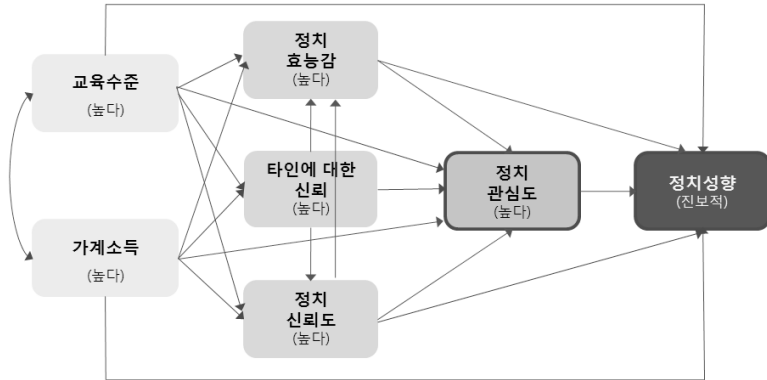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정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다른 세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소외적인 태도가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20대의 상당수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회와 정치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반복적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변화욕구가 좌절되어 기존 사회체제를 불가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소외적 정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대의 경우, 정치를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음에 관계없이 정치 효능감이 낮아 사회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20대가 사회문제에 대해 개인주의적 대응과 해결방식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라 볼 수 있다.

5. 정치성향의 세대별 형성경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대의 정치적 특성의 핵심은 정치적 무관심이다. 20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롯한 정치의식의 세대적 특성은 이들의 정치이념 형성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연구는 이 물음들에 답을 다음 절에서 경로분석을 통한 정치성향의 형성 경로의 세대별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1) 연구모형 및 변수구성

앞서 이 연구는 20대의 정치의식의 특성으로 이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추세 상 중도로 수렴하는 무당파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20대의 정치의식을 연구할 때, 정치성향과 정치적 무관심의 관계와 일반적으로 정치무관심과 정치성향을 설명한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정치정향과 관련된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 정치성향 형성 경로의 일반모델

이에 이 연구는 정치성향의 세대 별 경로모델로 20대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정치무관심을 매개적 내생변수로 놓고 앞의 이론적 검토 단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관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를 또 다른 내생변수로 설정하였다. 외생변수로 소득과 교육수준을 선택한 이유는 이념성향에 대한 기존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 개별 유권자의 이념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 학력과 소득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이내영, 2002: 61). 내생변수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interpersonal trust)⁶⁾

6) 퍼트남(Putnam, 1995)은 단체생활의 감소가 사회에 대한 신뢰 감소를 가져오고, 개인이 고립화되면서 사회구성원 각각에 대한 신뢰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 즉 사회신뢰(social trus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개인이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공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주요지표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신뢰는 다른 여러 형태의 시민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며”(Putnam, 2000: 222), 개인의 정치행동이나 정치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좋은 시민’일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Putnam, 2000: 222). 둘째, 사회적 신뢰의 표출은 성장기의 경험이 크게 작용된 개인적 경험의 반영(Putnam, 2000: 224)이므로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외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나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다(Putnam, 1995; 장수찬, 2002; 박은아, 2006; 송경재, 2007).

는 공동체 경험의 부재라는 20대의 세대적 특성이 정치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추가 되었다.

경로분석에서 연구모형은 인과관계의 방향이 일방향으로 설정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여러 단계에 걸쳐 설정한 변수들 간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의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모형을 검증하는데 사용된 유효한 표본의 수효는 원자료의 유효응답자와 같은 총 1,605개이며, Amos 7.0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 사용된 데이터가 제시된 전체 연구모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앞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화한 주요변수들을 관찰 가능한 측정변수들로 구성한 방법과 측정 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와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한 결과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주관적 자기평가 방식을 통해 측정된 이념성향을 채택하고자 한다. KGSS2006은 이념성향을 주관적 자기 평가방식을 통해 측정하고 있는데, 응답항목은 5가지의 서수적인 범주(매우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로 주어졌다.

둘째, 정치 효능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관련된 4개의

7) 경로분석은 각 변수들의 유효표본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결측값 처리의 표준방법중 하나로 제시되는 평균값 대체법(imputation)을 선택하였다. 평균값 대체는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변수들에 대한 값의 패턴을 반영하는 데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Kline, 1998: 75)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8) 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측정 변수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에서는 요인적재값이 “통상 .5를 기준으로 어떤 요인에 속하는지 판단”(이건, 1999)한다. 크론바흐 알파계수는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 즉 내적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며, “.7을 기준으로 한다”(이영준, 1991).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측정변수 간 신뢰도(cronbach's alpha) 측정 결과 지수화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효능감인 정부관리나 공공정책 등 정치일반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관심과 가장 가까운 “나 같은 사람은 정부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정치신뢰도와 관련된 KGSS의 측정항목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청와대에 대한 신뢰의 4개가 있다. 이들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변인 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측정항목이 모두 요인 적재값이 .5이상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alpha=.75$)도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었고 측정항목 간 피어슨 상관계수(.32-.56 사이에 분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각각의 측정항목의 값을 단순 합산하여 정치신뢰도를 지수화 하였다.

넷째, KGSS에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사회신뢰(social trust)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선택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와 “타인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의 두 개다. 이들 두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 결과 다음 표와 같이 두 항목을 하나의 변수로 지수화 하는 데에 매우 적합(적재값 .879, 크론바흐 알파값=.70, 피어슨상관계수=.55)하게 나타나 수용할 만하다. 두 측정항목을 단순 합산해 지수화 하였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매개적 내생 변수로 설정된 정치관심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경로모델은 외생변수인 소득, 교육 수준과 내생변수인 정치 효능감,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신뢰, 정치관심도, 그리고 최종 설명 내생변수로 정치성향의 7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내생변수의 측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외생변수인 소득은 월 단위 가계소득을 0원부터 10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범주화한 측정값(만원단위)의 중간값(medium)에 정규분포로 만들어주기 위해 로그(log)를 씌워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년수로 측정되었는데 최소 무학0년부터 최대 대학원 졸업 18년의 값을 갖는다. 경로모형을 분석하려면 사용 변수가 모두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편포도(또는 왜도, skewness)와 첨도(keratosis)값 및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을 아래 <표 6>의 기술 통계치로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정상분포조건인 편포도<2, 첨도<4(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162)를 고려했을 때, 이 연구의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모두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킨다.

<표 6> 경로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소득(로그)	4.78	7.38	-0.56	-0.14
교육수준(년수)	12.15	4.08	-1.36	1.73
정치 효능감	3.00	1.27	0.002	-1.09
타인에 대한 신뢰	2.21	0.91	0.77	0.39
정치신뢰도	5.06	0.88	-0.77	0.36
정치관심도	2.47	0.93	-0.50	0.27
정치성향	2.92	0.94	0.08	-0.70

6. 정치성향의 형성경로의 세대별 차이

세대별 정치성향을 결정하는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단계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을 AMOS 7.0을 이용해 실시한 결과⁹⁾는 아래 <표 7>과 같다.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한 변인에

9) 제시된 분석결과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AMOS의 분석결과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한 상, 전체모델과 20대 모델만을 그림모형으로

서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값인 표준화된 베타계수로 표시하였다.

<표 7> 세대모형별 표준화된 총 효과(standardized total effect), ()안은 표준화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1/2

(단, +p<.1 *p<.05 **p<.01 ***p<.001)

세대모형/변수명		소득	교육 수준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 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 관심도
전체 모형	타인에 대한 신뢰	.021	.048		.000	.000	.000
	정치 신뢰도	.024 (-.002)	.114**** (-.005)	-.096***		.000	.000
	정치 효능감	.035 (.002)	.193*** (.004)	.118*** (.001)	-.011		.000
	정치 관심도	.019 (.003)	.211*** (.014)	.020 (.008)	-.004*** (-.001)	.069***	
	정치성향	.030 (.001)	.024 (.017)	.016 (.016)	-.084*** (-.001)	.060* (.005)	.076**
20대	타인에 대한 신뢰	-.086	.132*		.000	.000	.000
	정치 신뢰도	-.029 (.012)	.036 (-.019)	-.144**		.000	.000
	정치 효능감	.110* (-.006)	.085 (.009)	.053 (-.005)	.034		.000
	정치 관심도	-.037 (.006)	.100 (.027)	.121* (.009)	-.004 (.005)	.150**	
	정치성향	.052 (-.003)	.061 (.014)	.027 (.027)	-.053	.034 (.023)	.154**
30대	타인에 대한 신뢰	.115*	.136**		.000	.000	.000
	정치 신뢰도	.093* (-.016)	.070 (-.019)	-.136**		.000	.000
	정치 효능감	.072 (.016)	.036 (.019)	.138** (-.001)	.006		.000
	정치 관심도	.042 (.012)	.054 (.009)	.084 (.027)	-.054 (.001)	.144**	
	정치성향	.114** (.003)	.052 (.005)	.029 (.029)	-.080 (-.007)	.074 (.020)	.141**

(계속)

제시하고, 나머지 세대의 모형은 총 효과와 간접효과를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7> 세대모형별 표준화된 총 효과(standardized total effect), ()안은 표준화된 간접효과(indirect effect)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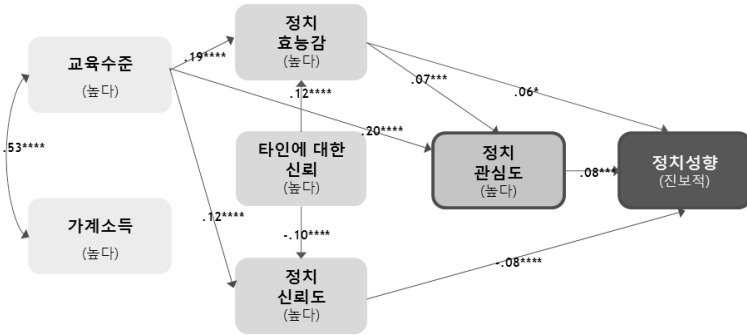
(단, +p<.1 *p<.05 **p<.01 ***p<.001)

세대모형/변수명		소득	교육수준	타인에 대한 신뢰	정치 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 관심도
40대	타인에 대한 신뢰	.073	.028		.000	.000	.000
	정치 신뢰도	.052 (-.005)	-.020 (-.002)	-.071		.000	.000
	정치 효능감	.108 (.010)	-.069 (.003)	.122* (-.001)	.012		.000
	정치 관심도	.094 (.008)	.124* (-.003)	.016 (.002)	.046	.041	
	정치성향	.036 (.003)	.040 (.011)	.012 (.012)	-.118** (.004)	.019 (.003)	.077
50대 이상	타인에 대한 신뢰	.020	.028		.000	.000	.000
	정치 신뢰도	-.003 (-.001)	.211*** (.002)	-.075		.000	.000
	정치 효능감	-.063 (.003)	.172*** (-.015)	.134** (.003)	-.050		.000
	정치 관심도	-.014 (-.008)	.399*** (.014)	-.040 (.016)	-.033 (-.005)	.105	
	정치성향	-.051 (-.002)	-.100* (.012)	.005 (.005)	-.061 (-.003)	.026 (.005)	.052

1) 정치성향 형성경로의 전체모델

<그림 2>의 전체모델¹⁰⁾의 경우, 우선 정치관심도에 외생변수인 교육수준과 내생변수인 정치효능감이 모두 직접적인 정적효과(각각 $b=.20$ $p<.001$, $b=.07$, $p<.001$)를 보이고 있다. 또 정치관심도는 전체모델에서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데에 정적효과($b=.07$ $p<.001$)를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효능감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 관심도 외에도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도도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데에 모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다. 정치효능감은 정치성향에 직접적인 효과($b=.06$,

10) 분석결과 모델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로는 그림에서 삭제했다.



<그림 2> 정치성향 형성경로의 전체 모델
(단, +p<.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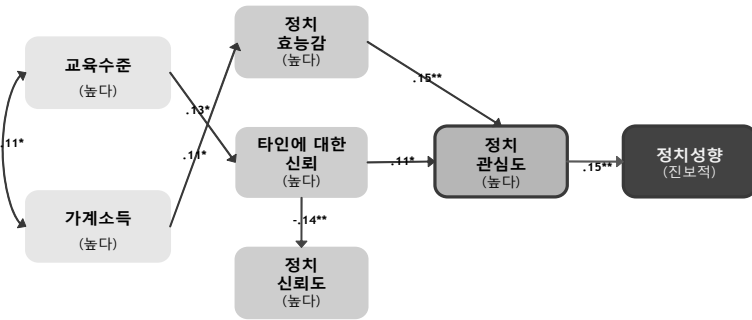
p<.05)와 정치관심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b=.005)를 나타냈으며, 정치 신뢰도는 정치성향에 부적인 직접영향(b=-.08, p<.001)을 끼친다. 이 밖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 정치성향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정치신뢰도를 매개로는 부적인 간접효과를 정치 효능감을 매개로는 정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체모델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효능하다고 느끼고 정치를 불신하며,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모델의 표본 수는 1605개이며,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결과¹¹⁾는 모형의 χ^2 (카이스퀘어)값이 45.834(df=5, p<.000)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GFI=.992, AGFI=.955, RMSEA=.071, NFI=.924를 나타내 높은 수준의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11) 모델적합도 수치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김계수, 2007).

Chi-Square	χ^2 값과 임계치를 비교, 일반적으로 표본의 수가 100-200개일때, χ^2/df 가 2-4배
RMSEA (근사오차제곱평균이중근)	작을수록 우수, 0.05이하
NFI(표준적합지수)	클수록 우수, 0.9이상 0(nofit)-1(perfect)
GFI(적합지수)	표본크기 200개 이상일 때, 0.9이상 우수 0(nofit)-1(perfect)
AGFI(조정적합지수)	자유도로 조정된 값이며 0.9이상 우수 0(nofit)-1(perfect)

2) 정치성향 형성 경로의 20대 모델

<그림 3>의 20대 모델의 경우, 먼저 정치관심을 설명하는 요인부터 살펴보면, 정치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비교적 높은 정적효과(각각 $b=.15$ $p<.01$, $b=.11$ $p<.05$)를 보인다. 또 외생변수인 교육수준은 정치관심에 직접적인 설명력($b=.13$ $p<.05$)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설명력($b=.014$)을 가진다. 다른 외생변수인 가계소득도 정치 관심도를 설명하는 데에 정치효능감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효과($b=.017$)를 가진다.



<그림 3> 20대의 정치성향 형성 경로
(단, + $p<.1$ * $p<.05$ ** $p<.01$ *** $p<.001$)

20대 모델에서 정치 관심도는 정치성향에 직접적인 설명력($b=.15$, $p<.001$)을 갖는다. 즉 20대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정치관심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정치성향에 간접적인 영향력(각각 $b=.017$, $b=.023$)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신뢰는 정치성향에 유의미한 직 간접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정치성향에 외생변수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내생변수들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각각 $b=.027$, $b=.023$)만 갖는다. 20대 모델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외생변수인 소득수준이 정치효능감에 정적 영향력($b=.11$, $p<.05$)을 준다는 점이다. 또 교육수준은 타

인에 대한 신뢰와 정치효능감에 높은 수준의 정적영향력(각각 $b=.13$, $p<.05$ 와 $b=.11$, $p<.05$)을 갖는다. 따라서 20대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으로 효능하다고 느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해 신뢰하는데, 또 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대 모델의 표본의 수는 328이며 모델적합도는 χ^2 값이 9.128($df=5$, $p<.104$)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GFI=.992$, $AGFI=.956$, $RMSEA=.050$, $NFI=.830$ 으로 모두 우수한 모델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3) 정치성향 형성 경로의 30대, 40대, 50대 이상 모델

30대 모델의 경우, 모델에 포함된 변수 들 중에서 정치 효능감만 정치관심에 직접적인 효과($b=.14$, $p<.001$)을 갖는다. 또 20대와 마찬가지로 최종 설명변수인 정치성향에 총 4개의 내생변수 중 정치관심도만 높은 유의수준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직접적인 효과($b=.14$, $p<.01$)를 보인다. 따라서 30대에서는 정치효능감이 높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0대 모델의 표본의 수는 389이며 모델적합도는 χ^2 값이 12.986 ($df=5$, $p<.024$)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GFI=.991$, $AGFI=.948$, $RMSEA=.064$, $NFI=.891$ 로 나타나 비교적 우수한 모델적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40대 모델의 경우, 교육수준이 정치관심에 설명력(각각 $b=.10$, $p<.05$)을 갖는다. 정치성향을 설명하는 데에는 총 4개의 내생변수 중 정치신뢰만이 유의한 부적효과($b=-.12$, $p<.001$)를 보인다. 따라서 40대 모델은 전체 세대의 모델 중에서 가장 모형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40대에서는 정치를 불신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타인을 더 많이 믿는 사람은 자신이 정치에 효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40대 모델의 표본 수는 419 이며 모델 적합도는 모형의 χ^2 값이 9.128($df=5$, $p<.104$)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GFI=.992$,

AGFI=.947, RMSE =.066, NFI=.934로 RMSEA를 제외한 모델적합도는 우수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모델의 경우, 정치관심에 정치효능감($b=.11$, $p<.01$)과 교육수준($b=.27$, $p<.001$)이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관심은 정치성향을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나머지 내생변수 모두 정치성향을 직접설명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 50대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많으며,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타인에 대해 신뢰할수록 정치적으로 효능하다고 느끼고, 정치적으로 효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50대 이상 모델의 표본의 수는 469이며 모델적합도는 χ^2 값이 48.410($df=5$, $p<.000$)으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는 GFI=.973, AGFI=.847, RMSE =.136, NFI=.760을 보여주어 전체 세대별 모형 중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인다.

7. 20대의 정치성향 형성경로의 세대적 특성

세대별 정치성향 형성 경로 모델의 분석결과,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20대의 정치성향 형성경로 모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세대별 형성경로에서 살펴보았듯이, 20대의 정치성향은 정치관심도의 효과에 의해 직접 설명되며, 40대와 50대의 경우 정치성향과 정치 관심도 사이에 유의한 효과가 없다. 이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20대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20대는 정치적 성향의 결정요인으로 민주주의 가치 등의 이념적 쟁점과 관련된 요인보다는 사회적 안정과 제도유지, 경제발전 등 실용적 쟁점과 관련된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 정치쟁점에 대해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힘들며, 사회적 공공성이나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정치적 덕성 등 사회적 가치나 이념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2)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효능하다고 느끼지 못하며, 정치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모델에서 정치효능감은 정치관심에 대한 강한 영향을 매개로 하여 정치성향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간접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대의 경우, 정치에 대한 스스로가 얼마나 효능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치에 대한 관심수준이 크게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모델과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모델과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아도 가장 강력하다. 20대에서 정치무관심을 매개로 하여 정치성향에 상대적으로 높은 간접효과를 가지는 정치효능감은 소득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 소득에 따른 정치 효능감의 차이는 다른 세대 모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20대만의 세대적 특성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20대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낮은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소득변수가 가계소득으로 측정되었으므로 20대의 상당수가 소득이 없는 학생임을 감안할 때,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20대의 정치 효능감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금의 20대가 청소년 시기에 경제위기에 대한 경험을 하고, 현재 시점의 사회 진출기에 청년실업 등 경제적 위기에 다시 노출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20대들은 두 차례 경제위기에 노출되면서 경제위기로 인한 좌절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반복적 좌절의 경험은 경제위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표현하는 개인의 투입(input)과정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정치적 효능

감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20대일수록 이러한 경험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3) 정치성향 형성경로를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타인에 대한 신뢰는 20대의 세대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경로를 보이는 변수이다. 교육수준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정치관심의 수준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교육수준이 낮은 20대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낮은 수준의 정치관심을 보이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추가 분석결과¹²⁾, 고졸이하의 20대가 대졸이상의 20대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정치관심도가 낮으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지지할 수 있다. 이는 고학력자가 대부분인 20대 경우, 교육수준이 정치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와 정치관심도를 매개로 하여 정치성향에 간접적인 영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또 20대의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정치관심도에 정적 효과를 보이며,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는 데에 유의한 간접변인이다. 따라서 20대의 경우 공동체, 즉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20대만의 세대적 특성으로, 앞서 20대의 세대적 특성으로 언급한 타인에 대한 연대 체험의 부재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 연대를 통한 사회적 문제의 집단적 해결에 대한 경험이 없는 20대는 자신들이 인식하고

12)

	타인신뢰(1-5점)		정치관심도(1-5점)		정치성향(1-5점)	
	평균	F-Value	평균	F-Value	평균	F-Value
고졸이하	2.13	4.99 p<.05	2.13	5.11 p<.05	2.71	6.82 p<.01
전문대졸이상	2.38		2.41		3.10	

있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 20대의 이러한 특성은 20대는 청소년이었던 IMF 금융위기 시기에 겪었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으며, 20대는 정치의식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사라지면서, 공동체 연대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당정치가 20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20대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정치신뢰도에 유의미한 부적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대에서 타인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치적 해결, 즉 자신과 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하지 않고 현실정치를 신뢰하는 순응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연대의 경험이 부재해, 사회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개인적 해결을 선호하는 20대의 세대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페이지는 정치참여에 대한 효능감과 신뢰의 관계는 어떤 집단의 특성들 뿐 아니라 그 집단과 정치체제와의 관계에 달려있다(Paige, 1971: 811)고 지적한다. 정치체제가 제공하는 기회구조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연대의 경험이 부재한 정치적 기회구조 속에서 성장한 20대들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가 그들의 정치적 신뢰, 나아가 정치관심과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요소이자 민주주의 제도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Stolle, 2003) 시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식이 높은 20대일수록 현실정치에 대해 불만이 많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8. 결론

이 연구는 정치적 무관심을 특성으로 하는 현재시기 20대의 정치의식의 바탕에 타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냉소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직결되는 20대의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불신은 20대의 공통된 기층경험인 청소년 시기의 경제위기와 사회진출기라는 불확정적 생애단계에서 직면한 경제적 위기에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비용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공동체 연대와 정치적 해결에 대한 불신은 20대만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며, 20대의 정치사회화 과정과 시대적 기회구조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이해해야 한다. 경제위기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같은 시대적 기회구조가 20대로 하여금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인주의적 대응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제도권 정치가 취업이나 등록금 문제 등 20대의 정치적 관심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특히, 20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공동체적 연대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치참여와 시민의식의 쇠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적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상호신뢰감과 같은 문화적 요소는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 조건”(Inglehart, 1988: 1215)이고 대인 신뢰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Stolle, 2003) 지적은 그러한 위기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낸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하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은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해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20대가 한국사회의 정치질서와 사회변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20대라는 세대의 구성원들 자신과 제도권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가 필요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시기의 20대와 현재시기의 20대의 정치성향 형성경로를 비교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20대와 다른 세대와의 비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치성향의 형성경로를 현재시기의 20대와 이전시기의 20대와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기간효과, 세대효과, 생애단계효과로 나누는 특정 세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성향을 자기 평가적(self-placement) 정치성향으로 측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정치성향의 실질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치성향에 대한 다면적 접근이 가능한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성향을 실제 현실정치에서의 투표행태나 정당 정체성(party preference)으로 측정하거나, 객관적 정치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정치성향의 형성경로 모델에서 내생변수 간 양방향 관계를 고려한 모형 분석을 시도한다면 보다 엄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의 형성 과정에서의 20대들의 체험을 드러낼 수 있는 체계적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에 추가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20대들의 체험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이해를 이룬 화할 수 있다면, 경로분석을 통해 밝혀진 20대의 정치의식의 형성 경로의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강철승. 1999. “한국정치체제에 대한 정치의식 조사연구- 제주지역 전 문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행태.” 『한국의 선거II』 이남역 엮음, 푸른길.

- _____.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 김묘성·김의철·박영신. 2003.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투표행동을 통해 본 정치의식 차이 분석: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김영경. 1997. “한국의 정치세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 민주화 세대와 신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이이범. 2006. “탈물질주의와 민주주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문화 변동 비교.” 『한국정당학회보』 5(2). 한국정당학회
- 김재한. 1996. “한국 유권자의 이념분포와 정계 구도.” 『한국 정치의 교의 이념과 논제』. 소화.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사상』 54. 사회과학원.
- 박은아. 2006.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 『교육과정평가연구』 9(1).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한국인구학회.
- _____. 2003.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 사회학』 27(3). 한국사회학회.
- _____.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81. 비판사회학회.
- 송경재. 2007.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국가전략』 13(4).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 2003-2007누적자료,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81. 비판사회학회.
- 윤인진. 2001. “구조방정식 모형.” 사회통계I 강의록. <<http://web.korea.ac.kr/~yoonin>>.
- 이건. 1999. “요인분석.” 『SPSS 사회조사분석』. 한국사회학회 편. SPSS 아카데미.
- 이경희. 1992. “한국 학생들의 정치의식 현황조사와 정치사회화 과정 분석-서울시내 초·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사상』 54: 53-79. 사회과학원.
- 이영준. 1991. 『SPSS/PC +를 이용한 다변량분석』. 서울: 석정출판사.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1). 한국 정치학회.
- 전대원. 1999.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용주·차재권·김은미. 2007. “정치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6(2). 한국정당학회.
- 전용주·김도경. 2008. “영호남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성향 비교연구.”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 발표 논문.
- 정진민. 1994.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1): 257-274
- _____. 2002. “세대와 정당정치.” 『사상』 54: 103-124. 사회과학원.
- 정희욱. 2003. “투표기권과 정치정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7대 대선 투표율 분석 보고서』.
- 한준·설동훈.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구조』. 한국여성

개발원 보고서.

황명희. 1990. “한국대학생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반미의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두승 · 박용치 · 설동훈 · 이남영 · 한준. 2002. 『한국인의 이념조사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홍두승 · 박용치 · 설동훈 · 이계오 · 한준. 2003. 『한국인의 이념조사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Almond, G. A., & Verba, Sidney. 1972.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wson, R. E., Kenneth Prewittm & K. Dawson. 1977.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 co.

Marsh, David. 1971. Political Socializat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 453-465.

Glenn, D. Norval. 1977. “Cohort Analysi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07-005.

Inglehart, Ronald. 1988. “The Renaissance of Political Cultu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4).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Billingsley, Keith R. & Tucker, Clyde. 1987. “Generations, Status and Party Identification: A Theory of Operant Conditioning.” *Political Behavior*. 9(4): 305-322

Klecka, R. William. 1971. “Applying Political Generations to the Study of Political Behavior: A Cohort Analysi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35(3).

Kline, B. Rex.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urvetaris, George. 1997. *Political Sociology: Structure and Process*. Allyn & Bacon; 박형신·정현주 옮김. 『정치 사회학』. 일신사. 1998.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276-32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ige, M. Jefferery. 1971. "Political Orientation and Rio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6: 810-820.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Putnam, D. Robert.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Schuster; 정승현 옮김.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2009.
-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ww.worldvaluessurvey.org>. World Values Survey Wave 2-5 Official Data File. Aggregate File Producer: ASEP/JDS, Madrid.

이영민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며, 사회이동에 미치는 교육효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정치사회학과 생애과정연구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시장 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기술"(2009,공저)이 있다.

